

숨통 트인 일상 '화색'...코로나 방심은 '경계'

광주 집합금지 대상 완화로 문 연 시설들 돌아보니

사우나 손님 늘고 전화 문의 빗발...노래연습장·뷔페 등 안도 무각사엔 수능 앞둔 학부모 발길...일부 업소 수척 여겨 '눈살'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시민·지자체 모두 경각심 유지해야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키로 하면서 그동안 영업을 중단토록 했던 노래방·목욕탕·뷔페 음식점 등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상인들은 20여일 만에 문을 열게 된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완화 조치가 이뤄지자마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되면서 모처럼 회복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던 14개 업종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 시설을 뺀 13개 업종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20일부터 영입에 들어가도록 했다. 해당 시설은 절·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을 비롯, 노래연습장·뷔페·목욕탕, 사우나·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

포차·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기원 등이다. 이들 시설들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등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광주시 서구 상촌동 무각사는 이른 아침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년생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무각사는 애초 수능시험을 앞둔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찾는 장소로 유명하다. 100일을 남겨놓고부터 매일 찾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던 곳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오랫동안 폐쇄됐다가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수험생 아들들 둔 나모(여·50)씨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100일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절을 찾아 법회를 들으며 불공을 드리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매일 법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당 안에는 두 손을 모으고 자녀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27일, 문을 닫아야했던 사우나도 26일만에 이날 일제히 문을 열었다. 서구 차평동 한 사우나 직원은 오전부터 영업 재개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사우나 관계자는 "새벽 5시 30분 문을 열기 전부터 이용객들이 줄을 섰고 문의전화도 쉴 새없이 울렸다"면서 "평소 점심시간 전에 찾는 방문객이 50명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83명이나 찾았다"고 했다. 광주시를 찾아 생존권을 마련해달라며 항의했던 노래연습장도 영업을 재개했다. 북구 운암동 코인노래방 운영자 김모(여·53)씨는 "오늘 문을 열려고 어제 밤부

터 가게 청소를 했고 단골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래방에는 오전에도 20대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는 "올해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일이 적어 저작권료, 업데이트비 등 관리비로만 수천만원을 썼다"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을 것을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뷔페 음식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다. 광산구 한 뷔페전문점 직원은 "문을 열긴 했지만 찾는 손님들이 적어 재료를 얼마나 주문하고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모처럼 재개된 영입에 들뜬 탓인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들도 잇따랐다.

북구지역 한 PC방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 8명을 입장시켰다가 적발됐고 광산에서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PC방이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변함없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광주시의 방역조치는 다소 완화된 조치일 뿐"이라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 시민과 지자체가 모두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 재판 다음달 마무리 될 듯

한 차례 더 공판 기일 진행

2년 넘게 진행된 전두환(89)씨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다음달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기소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 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청 대상자들 중 장사복 전 전두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증인대에 오른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주여성들과 송편 빚어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회원들이 21일 광주 북구 일곡어린이공원 내 쉼터에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체크카드 빌려주고 20만원 받았다가 20배 벌금 '날벼락'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엄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30대 남성 A(20)씨가 20배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던 도박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받았다가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최근 법원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분위기가. 김 판사는 "빌려준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빛원전 공극 최다...301개로 전국 원전의 90%

2~3년간 고쳐지지 않아 지역민 불안감도 커져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孔穴·작은 구멍이나 틈)이 전국 원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전국 원전의 공극의 90%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다.

그나마 이들 공극이 2~3년 넘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은 301개(1호기 14개, 2호기 21개, 3호기 124개, 4호기 140개, 5·6호

기 각1개)에 이른다. 전국 가동원전 24기 중 14기 원전에서 332개 공극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무려 90.6%가 한빛원전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같은 공극 보수 비용만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빛원전의 경우 내부철판 점검 및 보수, 콘크리트 보수 비용 등으로 1036억원이 들 것으로 예

상됐다. 공극이 발견된 부분이 격납건물과 내부 철판(CLP)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높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콘크리트 원자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철판은 원자로 격납 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 기능을 한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물에서 수백개의 공극이 발생했는데, 여태껏 수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간 멈춰있으니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이후로 3년 넘게 가동을 멈췄고 5호기도 지난 2018년 5월 11일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한 가동 대신,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한빛 3·4호기에서 공극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시공사의 현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관련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